



Palm Sunday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 8-9,17-18,19-20,23-24(◎2)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르코 14,1-15,47(또는 15,1-39)

- [성가안내]
- 입당성가 - 성가대 : 호산나 다윗의 자손
 - 봉헌성가 [340] 봉헌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 파견성가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기사	봉헌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강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낙태 영혼을 위하여 김진형 치프리아노 호세 잭스 (Jose Jax)	김종화 필립보 가족 김영숙 카타리나 김경련 울리다 손명희 엘리사벳 손명희 엘리사벳 이경자 율리안나 맨하탄 한인공동체
생기사	봉헌
이루리 모니카 손영소 스테파노 김영덕 유스티나 송명자 리디아 (생일 감사)	이경자 율리안나 손명희 엘리사벳 이경자 율리안나 송명자 리디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3월 28일	박기웅 사도요한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지영 유스티나
4월 4일	이영노 율리안나	박기목 알버트	조규진 아녜스	이영노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경 묵상

(이사 50,4-7/필리 2,6-11/마르 14,1-15. 47)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던 군중이 얼마 후 태도를 바꾸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침묵 속에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큰 힘을 갖습니다.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께 대한 순명,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 녹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때로 침묵 속에 잠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부르짖으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포기한 사람마저 모두 구하시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땅끝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가져오셨는지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희망인지 절망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나아가 생명을 주시는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는지....

구세주의 수난이 인류에게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잠시동안 현재의 우리처럼 되려고 하셨을 때, 이는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지내고 있는 천상 신비의 은총이고 파스카의 선물이며 일 년 동안 갈망하던 축제이고 재생의 시작입니다.

- 옛 교부의 파스카 강론에서, “성무일도 제2권”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2021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화해의 성사

우리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파스카 시기”

명칭 문제 : 파스카 또는 부활?

우리는 흔히 "부활 주일"이나 "부활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교회의 공식 전례서는 "파스카 주일" 또는 "파스카 시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파스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그 원래 뜻은 "지나가다, 건너가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파스카"를 "부활"이란 말로 바꾼 것은 아마, 파스카 시기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인 듯하다. 엄밀히 말해서 부활은 파스카 시기의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파스카가 곧 부활은 아니다.

구약의 파스카

원래 파스카는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여 지내는 축제로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월절"과 "무교절"로 번역된 이스라엘의 두 축제를 모두 가리킨다. 이 모두는,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누룩 안 든 빵"을 준비하고(무교절), 또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던 것을 기념하며(과월절), 시나이 사막에서는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며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일을 기억하는 축제이다. 이는 곧 종살이에서 해방으로의 건너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 종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건너감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고대하는 축제였으니, 이것이 구약의 파스카이다.

신약의 파스카

예수님도 바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동안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는데, 이는 바로 며칠 후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만찬 형태를 빌려 미리 앞당겨 지내신 것이다. 구약의 파스카에서 어린양의 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듯이,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죽음)로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으로 건너갔고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파스카이다.

그리스도교 파스카 축일의 기원

성경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성령강림 이후부터 파스카 축일을 지낸 듯하다. 기록상으로는 2세기에 이미 파스카 축일을 지냈고, 첫 보편 공의회였던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는 춘분 후의 보름 다음에 오는 주일에 파스카 축일을 지내도록 명시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지금까지 온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파스카 시기의 시작과 끝은?

파스카 시기가 결코 예수님의 부활만을 축하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행적과 신비 전체를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기인 사순시기부터 파스카 시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파스카 시기는 성 목요일의 오후에 이루어지는 "주의 만찬 미사"가 그 시작이며, 파스카 축일의 주일부터 50일 후가 되는 성령강림절로써 파스카 시기가 끝난다.

성삼일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파스카 주일)

한때 성 토요일까지 사순절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 중세 때 그렇게 된 것으로서, 지금은 성삼일이 바로 파스카 축일이다. 다시 말해서 성삼일은, "삼 일에 걸쳐 지내는 파스카 축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건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지내는데, 이러한 관행은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성삼일은 성 금요일(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성 토요일(무덤에 묻히심), 주일(부활)을 가리켰으나, 4세기에 최후 만찬을 함께 지내게 됨으로써 성 목요일의 만찬 미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

[한인 공동체 미사 시간 변경 안내]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4일, 오전 9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성삼일** 예절 안내]

온라인으로 중계 됩니다 : www.stfrancisny.org/holyweek

-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 4월 1일 (목) 오후 6시
- 성 금요일 : - 낮 12시 : 주님의 십자가상 7 말씀
- 오후 3시 : 십자가 경배 예식
- 오후 5시 30분 : 십자가의 길
- 성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 저녁 8시

[사순시기 - 공동 보속]

사순시기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는 투병중에 계신 모든분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매일 오후 3시에 각자 계신 장소에서

주모경 1번 바치며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 수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시기를 지내려합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바칩니다.
- 사순시기 동안에 받는 고백성사는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고백성사 1) 주일 미사전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
2) 성주간에는 고백성사가 없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투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정영도	노의선

- **사목협의회** - 오늘, 3월 28일 미사 후에 있습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